

제3차 시민소통 자문회의 회의록

□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0. 10.(목) 14:30~16:30
- 장 소 : 서울시청 갈등관리담당관실
- 참 석 : 총 6명
 - 시민사회단체 3명
 -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김상철 기획위원)
 - 도시연대(김은희 센터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남은경 사무총장)
 - ※ 명단과 발언자 번호는 무관
 - 서울시
 - 광장기획반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등

□ 회의 내용

- 시기에 연연하지 않고 새롭게 듣고 시작하려면 시민들과 숙의나 토론회를 했던 기존의 방식이 바뀌어야 함. 지난 회의에서 사업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으나 12월 2차례 시민대토론회를 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나갔기 때문에 다시 논의를 해야 함. (발언자① 000)
- 시민위원회 분과 의견과 지난 회의에서 준 의견을 종합해서 기존 숙의과정에 대한 내용은 재고하고 12월 토론회에 대한 방식은 열어놓음. (서울시)
- 시민 300명을 모아서 두 번 진행하는 것은 서울시가 내용과 형식을 고민해야 할 부분. 이런 형태의 시민 토론회가 기존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광화문시민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임. 날짜가 정해지고 언론에 나왔으면 내용과 형식이 이미 나온 것 아닌지? (발언자① 000)
- 내용과 형식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같이 논의해서 정하려고 했음. 전문가포럼을 여러 차례 진행하며 드러나는 쟁점들 중에 한 가지라도 정해서 대토론회를

해보는 것과 올해 안에 한 번 정도 해보고자 하는 이유로 일정을 미리 정해놓은 것임. 전문가끼리 집담회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전문가토론회를 시민참여단이 모두 와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시민참여단은 170명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고, 중장년층이 편중되어 있어 연령별 고르게 보충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음. 그래서 순서에 의한 일정과 장소만 정해 놓은 상황임. (서울시)

○ 이미 보도가 나가고 진행하기로 한 상황에 내용과 형식이 기존과 다르지 않으며 목적이 숙의인지 홍보인지 쟁점토론의 결정권이 있는지에 대해 시민위원회가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함. (발언자① 000)

○ 시민대토론회에 대해서는 의견을 듣고 조율해서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겠음.
(서울시)

○ 시민위원회가 광화문광장 논의를 대표하는 상황은 반대. 시민위원회의 입장이 늘 논란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임. 시민위원회를 개편해나가는 논의와 기존의 시민위원회 논의조차도 알 수 없었던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촉발시켜서 논의로 끌어당길 것인지는 분리되어 논의되어야 함. 제안을 하자면 시민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포괄하는 다른 트랙은 구분되어 논의되어야 함.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기에 열려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등장하지 않았으나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초대하고 등장시켜야 함.
(발언자③ 000)

○ 시민대토론회의 경우 쟁점을 가지고 원탁토론회를 한다고 하면 결정하는 구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쟁점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 한 달 밖에 안 되는 상황에 나올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름. 사실 쟁점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듯. 급하게 잡히는 상황이라 이야기 할 수 없음. (발언자① 000)

○ 전문가토론을 이야기 하자고 함 (서울시)

○ 지난 회의에서 제시한 안을 보고 단체별로 이야기를 해보니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반응임. 3시간에 10명이라는 토론자가 논의하려면 개인별 5분씩만 이야기

해도 한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림. (발언자① 000)

- 숫자가 많다는 것인지? (서울시)
- 이것은 토론회가 아님.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집중토론해야 하는데 쟁점의 폭이 넓은 광화문광장 사업의 경우는 불가능. 또한 전문적 이야기를 하는 자리도, 시스템도 아니고 쟁점도 불명확한 상황임. 그럼에도 출발은 해야 하니 폭 넓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건축가 한 명과 단체에서 참여하는 게 맞음. 그 자리에서는 깊이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함. (발언자① 000)
- 지난 회의까지 이해한 부분은 전문가 토론회를 몇 번하고 그 것을 모아서 시민 대토론회를 하면서 숙의 과정이 아닌 쟁점을 찾는 것으로 이해함. 숙의는 우려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론되면 안 됨. 토론회 안을 봤을 때 사업 관련해서 입장들을 내는 자리인데 왜 전문가들을 추천하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음. 시민 위원들과 쟁점을 놓고 토론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굳이 전문가를 추천해야 되는데 대한 의견이 있었음. 첫 토론회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할 것. 반대했던 시민 등이 올라와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까지 포괄하고 그동안 흩어져 있던 현안들을 공식화해서 다 쏟아내는 자리가 되도록 하고 쟁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답변해야 토론회 임. 첫 번째 토론회에서 어렵다면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되 앞으로는 진정한 토론회가 되어야 함. (발언자② 000)
- 주관이나 주최가 시민위원회 공간환경분과라면 형식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시민위원들이 주관이면 먼저 이야기 할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논쟁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자리에 배석하고 있을 시장님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됨. 이것은 생각이 다른 시민위원들과의 토론의 장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들이 시장님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어필을 하는 자리 정도로 보임. 시간과 일정이 정해졌고 18일에 시장님 참석이 전제 되었다면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던져줄 수 있는 토론자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함. 생산적인 논의가 아닌 광장의 사회성, 의미를 이

이야기할 때 ‘그런 것 다 의미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라
봄. 이 조건과 상황에서는 정석의 방식과 논의, 공론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함. 기존 민관 협력 체계가 있고 존중을 해야 하는 전제
하에서 보면 이것은 비정상적인 논의가 될 수 있음. 그런 면에서 우리 서로간의
시각차가 있을 수 있음.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자문회의든 추천하는 전문가든 어
떤 주장의 대표성을 가지고 참석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해야 함. 논의를 별도
로 해보지 않은 상황이기에 다양한 의견이 총 망라되는 자리 정도로 생각함. 기
회가 열리면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 함. 하지 않으면 존재도 부정되기 때
문에. (발언자③ 000)

- 그렇게 하더라도 토론회를 전문성이 있는 자리로 확대하고 만들려면 기존의 입
장을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어야 함. 단체들이 하는 방식과 달리 서울시
는 정제해야 하는데 그것이 첫 토론회는 아니라고 생각 함. 시장님 발표 이 후
첫 공식 토론회에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해왔던 것을 정리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이렇게 나온 이야기들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야 전문가들도 그 분야를 집중 이야기할 수 있음. 너무 광범위하면 전문가도 이
이야기하기 어렵고 누구를 추천할 것인지 고민스러움. (발언자② 000)
- 이 시간 안에 10명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이며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토론회
는 하지 않음. 내부자 추천을 하려고 해도 전문가가 무엇을 이야기해야하며 토
론도 아닌 상황인데 시민위원회 인원에 맞춰 내보내야하는 것인지와 이것이 전
문가 토론회가 맞는 것인지 혼란이 생김. (발언자① 000)
- 지난 회의에서 주제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가 필요한가?’로 하는 것과 그동안
의 논의과정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정했는데 그 다음에 누
가 참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토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음. 그래서 기
존 방식을 기준으로 안을 정리해서 보여준 것임. 만약 다른 방식으로 바꾸고자
하면 이야기해주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에 초점을
맞춰서 의견을 줄 것. (서울시)

- 쟁점정리 및 리뷰를 하면서 진단을 하는 것에 공감. 사업반장이 발제 보고를 할 예정이고 분과별 의원들을 구성한 것은 폭 넓게 열어놓고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함임. 정당성과 필요성 등 사업의 가치에 대해서 시가 설득력 있게 내놓아야 함. 이 부분은 하나의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자들이 필요성에 대한 가치와 지향해야할 가치를 각 분야 전문가로서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진행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배석하시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주면 될 듯. 숫자가 너무 많으면 조정 가능함.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음에 이야기할 쟁점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공간적, 가치적, 역사성 등 다양한 게 구성하려 했음. 숫자는 발제가 짧기 때문에 5명으로 구성했으나 줄이자고 한다면 가능 함. 점검해보고 추천해 줄 전문가를 이야기해주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임. (서울시)
- 시에서 그동안의 경위와 앞으로 진행 할 부분을 이야기하는 자리라면 시민위원회나 시민단체가 필요 없음.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정책토론회할 때 코멘트를 하는 방식 정도 아니겠는가? 찬성 발언이든 반대 발언이든. (발언자① 000)
- 그렇게 출발하려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 누군가는 토론자로 나와줘야... (서울시)
- 그래서 일반적인 토론회라고 봄. 시민위원회든 아니든 토론자 10명을 모아 한 마디씩 발표하면서 보완점, 개선점 등을 찾는 자리로 보임. 서로가 의견을 주고 받는 토론이 아닌 자기 이야기를 7분정도 할 것으로 보이며 토론자들끼리 의견을 주고받는 것은 불가능. 발제한 사람의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낼 뿐이지 논쟁을 하는 자리는 아님. (발언자① 000)
- 의도와 달리 시민위원회와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일대일 대담 방식의 논쟁이나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큼. 시민위원회와 시민단체가 적대, 갈등의 방식으로 대립하고 서울시가 중재하는 방식이 될 것 이라는 우려도 있음.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것은 시와 시민위원회라는 거버넌스라는 하나의 선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함. 하나로 이어는 것. 여러 개의 트랙으로 진행을 할 경우 하나는 전문가들이 모여 포럼을 하고 다른 곳에서는 비공식적 간담회가 열리면서 공론장, 토론회 등의 다양한 형태의 방식이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봄. 중요한 이슈를 앞에 배치해야하는데 뒤로 밀리고 그것을 앞으로 당겨오는 논의가 반복됨.

(발언자③ 000)

- 첫 번째 토론회는 굳이 전문가토론회라는 타이틀보다 서울시가 발제를 본 후 발표한 부분에 대해 맞고 틀린 것을 이야기하는 토론회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 그 자리에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나와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가능함. 필요하다면 주민도 나와서 참여가 가능. 이 모든 것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피드백을 받기 위한 자리로 보임. 1차 토론회는 다양한 형태가 합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며 명확하지가 않음. 찬반논쟁이 있는 것 같으나 논쟁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발제를 경과보고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쟁점을 파악하고 서울시와 이야기해야 하는지 시장님께 읍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로 토론을 해야 하는 자리인지 애매함.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발언자① 000)
- 이번 토론회는 문제 제기에 따른 장이며 누구와 토론하는가가 아닌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하는가가 중요함. 10월 18일에 공간분과가 날짜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 날을 첫 자리로 한 것임. 이 자리에서 쟁점들이 나오면 그것을 정리해서 쟁점별 전문가 토론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논의 하지 않았나? (서울시)
- 문제 제기의 장이라면 시민위원회만으로 구성해도 무관. (발언자① 000)
- 전문가들도 있고 시민도 가능. 시민단체도 가능.(서울시)
-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 외에 추가로 얘기할 수 있는지? (발언자③ 000)
- 그렇다.(서울시)
- 시민위원회 각 분과에서 공론화, 내부 토론회, 전문가 초빙 등의 내부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논의와 지금 준비하는 1차 토론회가 어떻게 다른지?
(발언자③ 000)

- 주관과 주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시민위원회의 참여, 역할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관을 맡김. 각 분과별로 진행하는 별도의 장이 있고 역사분과는 책자를 내려고 함. 이번 1차 토론회는 서울시가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맞고 다음 회차도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가고자 함. 1차 토론회 제안에 대해 숫자와 프로그램은 열려 있고 의견을 주면 상의해서 가능.(서울시)
- 시간이 촉박함.(발언자① 000)
- 굳이 전문가를 초대하지 않아도 지금 시민단체에서 자리에 오르고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그 다음 토론회에서 전문가를 선발해도 되지 않겠나.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달라.(서울시)
- 이전 논의대로 전문가 포럼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 정보가 공개되는 자리여야 함.(발언자③ 000)
- 그렇다. 이슈에 대해 관계가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의 워크샵이라 생각해도 됨. 다만 그동안에 진행해온 분들이 토론하거나 답변할 수 있음. (서울시)
- 그렇다면 주민이나 상인들도 나와야한다고 생각함. (발언자② 000)
-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토론 테이블에 나오는 것도 필요. (발언자① 000)
- 시민들은 시가 이야기만 듣고 피드백이 없는 것과 공식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것, 발언할 기회가 없는 것에 대해 피해의식이 있는 상태임.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으나 플로어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함.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공식적인 창구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함. (발언자② 000)
-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만나고 주민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음. (서울시)
- 공식적인 자리의 플로어 발언 기회를 부여해야 함. (발언자① 000)
- 이 자리가 문제를 다 쏟아내는 자리이고 시가 책임 있게 답변하고 대책을 내는 의미로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임.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 무조건 들

어주는 자리여야 함. (발언자② 000)

- 지금까지 열심히 시민들을 만났으나 피드백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기에 앞으로 어떻게 만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함. (발언자① 000)
- 추천할 주민이 있는지?(서울시)
- 제안을 했을 때 나올 사람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음. (발언자② 000)
- 시간이 촉박하고 지금 설명을 하고 테이블에 앉히는 것은 어려움. (서울시)
- 이번에는 시민위원회와 시민단체로 토론자를 구성하고 다음번에는 쟁점에 따라 예를 들어 교통이라면 직접적 연관이 있는 주민을 추천받고 협의 가능.(서울시)
- 시민들도 공식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싶은 부분이 있음. (발언자② 000)
- 가능함. 전문가 토론회가 아닌 것으로 가면서 인원을 줄일지? (서울시)
- 전문가 토론회가 아니라면 괜찮음. 인원은 중요하지 않음. (발언자② 000)
- 광화문광장 대토론회라는 제목으로 분과별 위원들이 앉고 시민단체 및 추가 1~2분 추천해서 앉으면 될 것으로 보임. (발언자① 000)
- 명단 요청 드림. (서울시)
- 발제문은 언제 제공되나? (발언자② 000)
- 내부 검토하여 최대한 빨리 제공하겠음.(서울시)
- 발제문이 있어야 토론자를 선정할 수 있음. (발언자② 000)
- 인원수에 부담이 없으니 참여자를 빨리 결정해주겠음. (발언자① 000)
- 발제를 줄이고 토론자의 입장 발표를 많이 하도록 하겠음. (서울시)
- 발제를 많이 줄이면 안 됨. (발언자① 000)

- 30분 정도 발제하는 것 괜찮은지? (서울시)
- 괜찮음. (시민단체)
- 지난 토론회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을 토대로 해명과 발제를 하면 될 것. 그렇게 줘야 발언할 내용을 선별할 수 있음. (발언자② 000)
- 사업 추진 현황과 제기된 문제와 그에 따른 답변을 해주면 될지?(서울시)
- 그렇다. 앞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도 포함해서 발표하면 됨. (발언자① 000)
- 추진 현황, 쟁점에 대한 설명, 앞으로의 계획 등으로 구성으로 하면 되는지? (서울시)
- 그렇다.(시민 단체)
- 그렇다면 첫 공개토론회로 가면 될 듯. 이번 토론회는 문제 제기 중심으로 집중하는 것에 동의 하는지? 이 사업의 필요성과 가치를 고민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음. (서울시)
- 우리 셋을 토론자로 넣으면 될 것 같음. 초대할 수 있는 분에게 연락도 해보겠음. 이 후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참여할 토론자들도 있으며 제대로 된 토론을 원함.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쟁점 토론회가 됐을 때 전문가 추천 가능.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된 토론을 원함.(발언자① 000)
- 미리 2, 3차에 대한 토론자, 주제, 일정에 대한 논의를 하면 어떨지(서울시)
- 포괄적 문제 제기는 가능하나 깊이 들어가려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1차에서 모든 문제 제기를 하고 난 후에 가능(발언자① 000)
- 이미 들어나 있는 교통, 역사 등의 쟁점들을 가지고 일정과 토론 전문가를 미리 정하는 것은 어떨지? 토론회 일정이 늘어난다면 집중도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 (서울시)

- 10월 토론회 이 후 12월 시민토론회가 있는데 무리라고 봄.(발언자① 000)
- 한 번에 끝날 토론이 아님. 시위·집회뿐이 아닌 공간을 나누는 문제도 토론이 필요. 하나의 쟁점도 한번이 아닌 여러 번의 토론이 필요. 여러 관점을 이야기 해야 하는데 너무 빠듯하게 일정을 잡는 것으로 보임. (발언자① 000)
- 여러 그룹을 나누고 학회도 다양하게 구성해서 할 예정. 2주 팀으로 토론회를 잡고 그 사이에 학회를 넣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고민 중. 이렇게 되면 자료나 정보가 많이 나오고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 함.(서울시)
- 국토학회, 건축학회, 조경관련학회, 도시설계학회, 교통학회 등 비슷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횡수만 채우는 것으로 보임 (발언자① 000)
-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명확한 쟁점이 없고 교통이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끼리 정할 수 없고 역사나 교통 전문 단체도 있는 상황에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수도 없음. 또한 각 단체로 돌아가 직접 참여하든 전문가를 섭외하든 상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필요 함. (발언자② 000)
- 쟁점을 3~4가지로 정리해보고 2개씩 묶으면 일정을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11월~12월까지 5번 정도 생각했으나 2번 정도는 학회에서 하고 토론회를 3번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어떨지? (서울시)
- 학회하고는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발언자② 000)
- 협의를 통해 정하겠음. 논의 구조에 들어오지 못한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임. 1차 토론회 후 바쁘게 2차를 준비하는 것보다 지금 2차까지 미리 준비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 좋은 듯. 10월 30일이 어려우면 날짜를 몇 개 더 드릴 수 있음. 1차 토론회 발제는 서울시가 하고 2차 발제는? (서울시)
- 서울시가 해야 함. 모든 주체는 서울시 임. 서울시든 전문가든 책임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 함. 광화문시민위원회가 결정권이 있는지? (발언자② 000)

- 결정권 없음. 그래도 발제는 시민위원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서울시)
- 시민위원이 발제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서울시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개인을 대상으로 논쟁을 벌이게 됨. 발제를 하는 전문가는 개인의 의견이 아닌 서울시의 정리된 입장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어야 함. (발언자② 000)
- 발제 부분은 그렇게 하겠음. (서울시)
- 18일(1차 토론회) 건은 확정으로 이해하나 다음은 고민스러움. 앞으로 계속 서울시가 발제 하고 토론회를 열어야 하는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과 논의를 하면 반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김. 토론회를 한 뒤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기존 그대로 이거나 약간만 변경되는 경우도 많아 우려 됨.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도 동시에 고민하면서 가야 함. 그렇지 않으면 그냥 토론회를 했다는 명분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고민할 이유가 없음. (발언자① 000)
- 단체의 입장을 들고 오거나 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음. 합의되고 결정된 것으로 비춰지는 듯 한 기사를 보고 이야기하기 위해 오늘 모인 것임. 오늘 서울시의 입장을 들었기 때문에 돌아가서 내·외부적으로 협의하겠음. (발언자② 000)
- 하나의 방향으로 숨 가쁘게 함께 달려가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답답하고 힘들 수 있음. 개인적으로는 내년까지도 논의를 계속 해야 한다는 생각 이지만 내년에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랬을 때 이 토론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위한 도구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음. 그래서 토론회 횟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토론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것이 행정의 시스템과 부딪히는 간극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하고 사업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협치라고 봄.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고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토론회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계속적으로 입장표명을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봄.(발언자① 000)

- 신뢰가 없는 상태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행정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제기를 공식적인 석상에서 들고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서울시)
- 지금 급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토론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행정의 절차대로 진행됐음.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음. 약간의 방식이 바뀌거나 했지만 기존 그대로 진행됐음. 이것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반대했던 이유임. (발언자① 000)
- 보시기에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서울시가 많이 오픈하고 있는 상황임. 시장님도 끝까지 참여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참여해주면 좋겠음. 토론회를 준비하고 합의하는 과정에 함께 동참해주길. (서울시)
- 내·외부적으로 논의를 하지만 행정과 단체는 물리적 차이가 있음. 단체는 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시에서 원하는 일정에 맞춰 우리뿐이 아닌 전문가들을 준비시키고 참여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게 답을 줄 수 없음. (발언자② 000)
- 다시 이야기하지만 토론회를 여러 차례 열어서 진행을 해도 행정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전문가 섭외 시 이런 부분의 질문을 받게 되는 것에 고민이 있음. (발언자① 000)
- 두 차례 공론화를 진행해보며 섭외의 어려움을 공감 함. 2주 팀이 어려우면 첫 번째는 3주로하고 11월 첫 주 1차 토론회 후 쟁점이 나오면 2차 토론회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듯. 토론 참석 전문가들께 사업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료를 드리거나 직접 설명 하는 것은 어떤지? (서울시)
- 1차를 하고 난 뒤 주제와 형식의 정리가 필요 함. (발언자① 000)

- 주요 주제는 교통으로 하고 나머지는 열어 놓는 것이 어떤지? (서울시)
- 교통에도 쟁점들이 있음. 예를 들어 버스의 경우 해야 할 쟁점이 많고 넓고 깊게 쟁점을 만드는 것이 병행되어야 함. (발언자① 000)
- 2차 토론에 대한 교통, 역사 등 방향성 및 일정을 내부 논의해서 알려주면 발제 등 토론회 준비에 도움이 될 것. 토론회를 통해 쟁점이 정리되면 그 내용을 토대로 12월 시민대토론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협의를 했기에 그 전에 전문가 토론회를 밀도 있게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해서 일정을 잡은 것임. (서울시)
-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서 논의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자② 000)
- 마무리.